

## 1인 가구의 금융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

### Analysis on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Property

조홍중\*\* · 이창민\*\*\* · 손재희\*\*\*\*

####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선행연구	참고문헌
III. 자료 및 분석방법	Abstract

**국문 요약** :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령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인 경제활동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 ~ 30대 독신 여성층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주유가구형태인 가족가구를 기준으로 행하지는 경제활동도 1인가구의 영향으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온라인 중심의 관계망, 그리고 소비양식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의 금융상품 소비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1인 가구가 지니는 금융투자의 특성을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노동패널을 이용(10 ~ 13차, 07 ~ 10년도)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의 통계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각의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예/적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과 위험자산(적립식 펀드)에 대한 투자행태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1인 가구는 예/적금(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에 상대적으로 더(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예/적금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1인 가구에서는 존재하나 다인 가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교육수준과 투자비중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지만, 다인 가구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투자비중은 1인 가구에서는 시간적 추세가 존재하지 않으나, 다인 가구에서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 : 1인가구, 포트폴리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715).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제 1저자(hongcho@dankook.ac.kr).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교신저자(changmin74@hanyang.ac.kr).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공동저자(jhee5910@daum.net).

## I. 서론

1인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이는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독신 여성의 증가는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주체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향후 1인가구 시대의 도래는 앞으로 정상적인 가구형태인 가족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특히 소비패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온라인 중심의 관계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 가치 및 소비양식의 변화가 1인 가구증가에 따른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가구의 금융상품 소비 특징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sup>1)</sup>란 혼자사는 사람을 말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을 통칭하고 2인 가구의 경우, 발생유형과 혈족관계의 여부에 따라 노인부부, 모자/부자 가구(Single mom/ Single dad),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20년간 국내 1인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일반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1980년도 4.8%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0%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소득 구조에서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다인 가구의 33%를 차지하나 평균 저축 액은 다인 가구에 비해 그리 크게 낮지 않다. 1인 가구는 직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이

전소득의 경우는 전체 소득의 14.6%를 차지하여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나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고졸 미만 비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여성 1인 가구가 60대 이상의 고령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주 형태는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노동패널(07, 08, 09, 10년도)을 통하여 이러한 1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본 후 금융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중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연구는 김옥연, 문영기(2010)이다. 그들은 1인가구와 가족 중심의 보통가구를 구분하여 가구 자산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구의 주택소유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총 자산에 대하여 주택자산비중과 부동산자산비중은 1인가구가 보통가구보다 적었으나, 금융자산 비중은 1인가구가 더 높았다. 또한, 주택 소유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순자산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지만 학력과 직업변수는 가구별로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금융투자 행태의 차이, 특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위 연구와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의 주요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각의 금융자산 중에서 예/적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을 묶은 안전자산과 적립식펀드(위험자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1인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둘째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다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포트폴리오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셋째, 1인가구 표본과 다인 가구 표본을 분리한 후 회귀분석을 한 경우에 안전자산의 경우, 다인 가구 표본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1) 1인가구(one-person-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음. 독신가구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의미. 따라서 엄밀히 말해 단독가구와 독신가구는 혼용할 수 없는 개념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예/적금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패턴은 1인 가구에서 나타나고, 다인 가구에서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 가구에서는 교육수준과 투자비중 간의 양의 관계가 있으며, 다인 가구에서는 연관 관계가 없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은 1인 가구에서는 시간적 추세가 없고, 다인 가구에서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II. 선행연구

기존 연구 중 본 논문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형태 별 투자형태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인 것인데,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는 1인 가구 유형별 특징과 금융산업의 영향에 대해 해외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며 서술했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1인가구 대상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미혼독신가구와 기혼부부가구 펀드투자행동의 비교연구(2012)는 미혼독신가구와 기혼부부가구의 투자행동과 투자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을 했다. 우선, 기혼의 펀드보유 규모가 미혼에 비해 2배 가량 높았고,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의 경우 미혼보다 4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미혼의 경우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나, 기혼의 경우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역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옥연, 문영기(2010)는 1인가구와 가족 중심의 보통가구를 구분하여 가구 자산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구의 주택소유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총자산에 대하여 주택자산비중과 부동산자산비중은 1인가구가 보

통가구보다 적었으나, 금융자산 비중은 1인가구가 더 높았다. 또한, 주택 소유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순자산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지만 학력과 직업변수는 가구별로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분석한 것으로는 배미경(2006)이 있는데, 안전금융자산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하는 시점에 함께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위험금융자산은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이기 때문에 연령증가와 금융자산의 안정성 선호도와와의 관계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도 안전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시점에서 다시 감소하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최미향(2010)은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항목 중 예금, 주식, 보험, 빌려준 돈 항목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험회피적인 집단에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위험추구적인 집단에서는 위험자산과 보험의 비중이 높았다. 조재현(2012)은 보험 가입이 가계 위험금융자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보험 가입과 가계 위험금융자산의 보유 유무 및 보유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위험금융자산의 보유 유무 및 보유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유의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낮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 금액과 위험금융자산의 보유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근로소득이 높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금액이 위험금융자산의 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Household's saving portfolio

There are variable's definition in Table 1, savings means Last year's monthly savings and saving portfolio consists of deposit/installment savings, personal insurance, term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saving insurance, Gye(which means that traditional private fund popular among Koreans), installment fund, and other savings.

Sort		Description
Savings portfolio	Last year's monthly average deposit/ installment savings	Last year's monthly average deposit/installment savings
	Last year's monthly average personal pension	a private pension scheme in which an individual contributes part of his or her salary to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invests it so that a lump sum is available on retirement
	Last year's monthly average term insurance	life insurance for a specified amount which is payable to the insured person at the expiration of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o a designated beneficiary immediately upon the death of the insured
	Last year's monthly average whole life insurance	Insurance that guarantees a specific sum of money to a designated beneficiary upon the death of the insured or to the insured if he or she lives beyond a certain age.
	Last year's monthly average saving insurance	Insurance that offer both protection and a disciplined way to save regularly. It help Insured plan for insured's savings, be it insured's child's wedding or education, buying a house or that dream vacation
	Last year's monthly average Gye(financial club)	traditional private fund popular among Koreans, whose members chip in a modest amount of money and take turns to receive a lump sum share
	Last year's monthly average installment fund	Fund that uses the method by which to divide the money and steadily invest it in the long term.
	Last year's monthly average other savings	Last year's monthly average other savings
Total value about stock, bonds, and trust at survey period		Total value about stock, bonds, and trust at survey period

### III. 자료 및 분석방법

우리는 1인 가구의 금융소비 패턴을 살펴보기  
노동패널(10 ~ 13차, 07 ~ 10년도)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노동패널은 비농촌지  
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998년을 시작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Table 2. Household's labor income properties (mean)

The table shows mean of household's labor income. Annual average income of one-person-household is 20 million won and that of multi-person household is 40 million won.<sup>2)</sup> Due to Great recession, these monthly average income of two household type was decreased in 2009. After that, monthly average income of those were increased to at 189(one-person household) and 391(multi-person household).

		2007	2008	2009	2010
One-person household	No.	316	209	321	430
	Last year	2,774,883 (1800)	2,013,813	2,046,542	2,085,851
	Last month	180,9056	215	182,2326	189,7143
Multi-person household	No.	7,095	4,828	2,149	2,677
	Last year	4,195.98	4,314,566	4,253.19	4,701,388
	Last month	348,7535	418,2933	344,0269	391,3477

Table 3A. Education level and work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Table indicate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hole sample. Household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is High School (33%) and the highest education level among house members is university (34%). For one-person-household, college or higher level of education is in charge of 46% and this rate is higher than more than one-person-household which is 37%.

Independent Variables		No.	One-person household	Multi-person household
No. of household (unit: household)		21,060	1,429	17,006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Uneducated	347(1.6%)	44(3.1%)	241(1.4%)
	Elementary School	2,156(10.2%)	163(11.4%)	1,535(9%)
	Middle School	2,900(13.8%)	106(7.4%)	2,337(13.7%)
	High School	7,818(37.1%)	450(31.5%)	6,603(38.8%)
	College	2,248(10.7%)	226(15.8%)	1,776(10.4%)
	University	4,574(21.7%)	376(26.3%)	3,664(21.5%)
	Master's Degree	869(4.1%)	59(4.1%)	724(4.2%)
	Ph.D.	148(0.7%)	4(0.3%)	124(0.7%)
Highest education level in each household	Uneducated	62(0.3%)	44(3.1%)	2(0.0%)
	Elementary School	505(2.4%)	163(11.4%)	72(0.4%)
	Middle School	595(2.8%)	106(7.4%)	168(1.0%)
	High School	5,159(24.5%)	450(31.5%)	3,892(22.9%)
	College	4,187(19.9%)	226(15.8%)	3,602(21.2%)
	University	8,785(41.7%)	376(26.3%)	7,710(45.3%)
	Master's Degree	14,877(7.1%)	59(4.1%)	1,315(7.7%)
	Ph.D.	277(1.3%)	4(0.3%)	242(1.4%)

Table 3B. Work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In table, manufacturing, hit 12%, is the most common field for household. For both two house type, Wholesale/Retail, Consumer Goods Repair is 2<sup>nd</sup> commonfieldforhouseholder's job (17.8%, 14.5). Next, the 3<sup>rd</sup> commonfieldforhouseholder's job is manufacturing and each share of two house type is 11.9% (one-person household) and 9.9% (multi-person household).

Independent Variables		No.	One-person household	Multi-person household
No. of household(unit: household)		21,060	1,429	17,006
Householder's job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750(3.6%)	49(3.4%)	472(2.8%)
	Mining	15(0.1%)	0(0.0%)	13(0.1%)
	Manufacturing	3,021(14.3%)	254(17.8%)	2,466(14.5%)
	electric, gas, water	90(0.4%)	8(0.6%)	72(0.4%)
	Construction	1,221(5.8%)	85(5.9%)	1,010(5.9%)
	Wholesale/Retail, Consumer Goods Repair	2,100(10.0%)	170(11.9%)	1,679(9.9%)
	Lodging, Restaurant	887(4.2%)	95(6.6%)	683(4.0%)
	Transportation	831(3.9%)	36(2.5%)	704(4.1%)
	Networking	213(1.0%)	19(1.3%)	172(1.0%)
	Finance, Insurance	526(2.5%)	36(2.5%)	430(2.5%)
	Real Estate, Leasing	334(1.6%)	21(1.5%)	270(1.6%)
	Service	1,066(5.1%)	98(6.9%)	842(5.0%)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Defense, Public Service Administration	550(2.6%)	55(3.8%)	436(2.6%)
	Educational Service	910(4.3%)	96(6.7%)	722(4.2%)
	Public Health, Social Welfare	419(2.0%)	63(4.4%)	321(1.9%)
	Entertainment, Broadcasting, Theatre	253(1.2%)	23(1.6%)	200(1.2%)
	Other Public and Personal Service	827(3.9%)	103(7.2%)	612(3.6%)
	Unclassifiable	6(0.0%)	1(0.1%)	4(0.0%)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  
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  
는 저축은 월평균 저축액이며, 저축 포트폴리오  
는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 종신 보험,  
저축성 보험, 계, 적립식 펀드, 기타 저축 등으로  
구성된다.

1인 가구의 연 근로소득은 2007년 2,700만원,

2008년 2,000만원, 2009년 2,000만원, 2010년을  
2,000만원대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월 근로  
소득은 2007년 180만원, 2008년 215만원, 2009년  
182만원, 2010년 189만원이다. 다인 가구의 연 근  
로소득은 2007년 4,200만원, 2008년 4,300만원,

2) Due to existing extreme value, we indicate median  
(18 million won).

Table 4. Each household's asset portfolio comparison (average value)

By Table 4, One-person-household shows that they put less money on safe assets such as personal pension, Term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and saving insurance. Among gross savings, if you closely look at the saving ratio, it is clear that one person household are less likely to invest for the risk free assets (except deposit/savings).

	Panel A. Each Household asset portfolio comparison(average value)		Panel B. Ratio of each product		
	One-Person-household	More than one-person-household		One-Person-household	More than one-person-household
No.	1,276	16,749	Deposit/Savings	0.4	0.2
Total Income (annual)	2,234.80	4,318.20	Personal Pension	0.02	0.03
Total Saving (monthly average)	52.3	71.4	Term Insurance	0.3	0.5
Deposit/Savings	33.8	28.3	Whole Life Insurance	0.05	0.08
Personal Pension	2.1	3.7			
Saving Insurance	0.03	0.05			
Term Insurance	10	23.5			
Gye	0.006	0.01			
Whole Life Insurance	2.3	6			
Installment Fund	0.01	0.02			
Saving Insurance	1.9	4.1			
Other Savings	0.002	0.0005			
Gye	0.4	1.5			
Risk Free Asset	0.02	0.03			
Installment Fund	1.4	4			
Risk Asset	0.9	0.9			
Other Savings					

2009년 4,200만원, 2010년 4,700만원이며, 월 근로 소득은 2007년 349만원, 2008년 418만원, 2009년 344만원, 2010년 391만원 이다.

다음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가구주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31.5%와 38.8%이다. 1인 가구의 최종학력의 경우 다인 가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전문대졸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구 내 최종학력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다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수준은 대졸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인 가구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중이 약 54.4%를 차지하며 이는 교육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가구주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risk free and risk assets (whole sample)

Table 5 indicates the basic regression analysis on risky and risk free assets. The regression results of risk assets and free risk assets show that one-person household and multi-person household a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se coefficients sign of two households a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because of Assets' propertie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Free Risk Asset	Risk Asset (Installment Fund)
One-person-Household	-0.006 (0.005)	0.002 (0.004)
Multi-person-Household	0.001 (0.003)	-0.003 (0.002)
Annual income from last year	-3.14E-06*** (5.69E-07)	2.84E-06*** (4.19E-07)
Elementary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3.57E-06 (0.009)	0 (0.005)
Middle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7 (0.009)	-0.005 (0.005)
High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6 (0.009)	0.007 (0.005)
Colleg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8 (0.009)	0.012* (0.006)
4 Year University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25*** (0.009)	0.024*** (0.006)
Master's degre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18* (0.01)	0.027*** (0.008)
Ph. D.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43** (0.02)	0.044*** (0.017)
2008	0.065*** (0.002)	-0.043*** (0.001)
2009	0.065*** (0.002)	-0.044*** (0.002)
2010	0.025*** (0.003)	-0.013*** (0.003)
Constant term	0.956*** (0.009)	0.023*** (0.006)
R-squared	0.0668	0.0629
No. of observation	13922	13922

비중은 각각 31.5%와 38.8%이다. 1인 가구의 최종학력의 경우 다인 가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전문대졸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구 내 최종학력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n each product (Whole sample)

The table indicates regression analysis on each product to whole sample. Table shows that difference between One-person-Household and Multi-person-Household exists. To explain, the regression results of each financial products imply that coefficients of households-type for Deposit/Installment saving, Term insurance, and saving insuran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due to type of asset, its coefficient sign is different.

Independ	Dependent Variables						
	Deposit/Inst allment saving	Personal pension	Term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Saving insurance	Gye	Risk Asset (Installment Fund)
One-person-Household	0.062 <sup>***</sup> (0.016)	0.000 (0.005)	-0.037 <sup>**</sup> (0.017)	-0.01 (0.007)	-0.021 <sup>***</sup> (0.006)	0.001 (0.002)	0.002 (0.004)
Multi-person-Household	-0.012 <sup>***</sup> (0.011)	0.003 (0.003)	0.113 <sup>***</sup> (0.012)	0.012 <sup>**</sup> (0.005)	0.000 (0.004)	0.001 (0.002)	-0.003 (0.002)
Annual income from last year	6.09E-06 <sup>**</sup> (2.95E-06)	2.95E-06 <sup>**</sup> (1.30E-06)	0.00E+00 <sup>**</sup> (5.53E-06)	5.78E-07 (5.30E-07)	9.91E-07 <sup>*</sup> (5.90E-07)	3.84E-07 (2.34E-07)	2.84E-06 <sup>***</sup> (4.19E-07)
Elementary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8.00E-03 (0.326)	0.007 (0.007)	0.033 (0.034)	0.005 (0.017)	-0.037 <sup>**</sup> (0.016)	0.005 (0.007)	0 (0.005)
Middle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3 (0.031)	0.008 (0.007)	0.056 <sup>*</sup> (0.033)	-0.003 (0.017)	-0.024 (0.017)	-0.001 (0.007)	-0.005 (0.005)
High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69 <sup>**</sup> (0.031)	0.132 <sup>*</sup> (0.007)	0.046 (0.033)	0.013 (0.016)	-0.009 (0.016)	-0.002 (0.007)	0.007 (0.005)
Colleg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41 (0.032)	0.022 <sup>***</sup> (0.008)	-0.011 (0.033)	0.026 (0.017)	-0.003 (0.017)	-0.004 (0.007)	0.012 <sup>*</sup> (0.006)
4 Year University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46 (0.032)	0.031 <sup>***</sup> (0.008)	-0.025 (0.034)	0.026 (0.017)	-0.011 (0.016)	0 (0.007)	0.024 <sup>***</sup> (0.006)
Master's degre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57 (0.035)	0.06 <sup>***</sup> (0.011)	-0.021 (0.038)	0.012 (0.018)	-0.012 (0.018)	-0.01 (0.007)	0.027 <sup>**</sup> (0.008)
Ph. D.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57 (0.049)	0.031 <sup>**</sup> (0.016)	-0.042 (0.052)	0.048 <sup>*</sup> (0.025)	-0.022 (0.022)	-0.007 (0.009)	0.044 <sup>***</sup> (0.017)
2008	0.034 <sup>***</sup> (0.008)	-0.006 <sup>**</sup> (0.002)	0.067 <sup>***</sup> (0.008)	-0.044 <sup>***</sup> (0.004)	0.014 <sup>***</sup> (0.003)	-0.022 <sup>***</sup> (0.001)	-0.043 <sup>***</sup> (0.001)
2009	0.086 <sup>***</sup> (0.009)	-0.003 (0.003)	0.001 (0.009)	-0.048 <sup>***</sup> (0.004)	0.029 <sup>**</sup> (0.004)	-0.021 <sup>***</sup> (0.001)	-0.044 <sup>***</sup> (0.002)
2010	0.07 <sup>***</sup> (0.008)	0.000 (0.003)	-0.01 (0.008)	-0.058 <sup>***</sup> (0.004)	0.023 <sup>***</sup> (0.003)	-0.014 <sup>***</sup> (0.002)	-0.013 <sup>***</sup> (0.003)
Constant term	0.239 <sup>***</sup> (0.079)	-0.023 <sup>***</sup> (0.008)	0.545 <sup>***</sup> (0.102)	0.095 <sup>*</sup> (0.054)	0.099 (0.081)	0.022 <sup>***</sup> (0.007)	0.234 <sup>***</sup> (0.006)
R-squared	0.051	0.023	0.058	0.022	0.013	0.018	0.062
No. of observation	13922	13922	13922	13922	13922	13922	13922

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수준은 대졸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인 가구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중이 약 54.4%를 차지하며 이는 교육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제조업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각각 17.8%와 14.5%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인 가구의 비중은 9.9%, 1인 가구비중은 11.9%이다. 다음으로 건설업의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5.9%와 5.9%이다.

한편 가구별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Table 4.), 1인 가구에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 종신 보험, 저축성 보험 등 안전자산의 투자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총 저축 중 각 상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예/적금을 제외하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모형의 분석에서는 다인 가구와 1인가구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표본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1인 가구는 위험자산<sup>3)</sup>에 대해 양의 계수, 안전자산에 대해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인 가구에서는 반대로 나타나는데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구별 금융투자 분석을 할 때 금융상품 별 분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다. 또, 위에서 예상한 것처럼 대졸이상의 학력더미에서는 안전자산에는 음의 계수가, 위험자산에서는 양의

계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도별 계수 값은 위험자산의 경우 음의 계수, 안전자산의 경우 양의 계수를 보이고 유의미했으며 2010년 변수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계수 값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표본을 나누어 금융상품에 대해 분석하였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전체표본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예/적금과 보장성 보험의 경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1인 가구가 예/적금(보장성 보험) 포트폴리오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고(낮고), 다인 가구가 예/적금(보장성 보험) 포트폴리오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다(높다). 종신보험의 경우 다인 가구의 투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 가구의 투자비율이 유의미하게 낮다. 연도 변수의 경우 2008년 변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유의미한 결과 값을 보였으나 이후의 연도 더미에는 상품에 따라서 연도 변수의 유의미성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예/적금의 경우 모든 연도변수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 개인연금 및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2008년 연도변수만 유의미하며, 개인연금은 음의 값, 보장성 보험은 양의 값을 보였다. 종신연금은 모든 연도변수가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며 계수 값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모든 연도변수에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다. 계와 위험자산인 적립식 펀드의 경우는 모든 연도변수가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며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는 개인 연금과 안전자산의 경우에만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값을 보였으며, 개인연금과 안전자산 모두 양의 관계를 보였다.

3)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쳐서 다인 가구와 비교했을 경우의 결과도 유사하다. 위험자산의 경우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10% 수준)이다.

Table 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n risk free and risky assets (Partial sample)

The table shows a result of each type of household. The results indicate that Risk asset and Free Risk asset influencing on education degree vary depending on type of household. For free risk asset of one-person household and multi-person household, the empirical results explain that coefficients of high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are statically significant. These coefficients except for Ph. D have different signs for one-person household and multi-person household.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One-person-household		Multi-person-household	
	Free Risk Asset	Risk Asset (Installment Fund)	Free Risk Asset	Risk Asset (Installment Fund)
Annual income from last year	-1.99E-06 <sup>***</sup> (1.03E-07)	2.02E-06 <sup>***</sup> (9.19E-08)	-3.67E-06 <sup>***</sup> (5.81E-07)	3.16E-06 <sup>***</sup> (5.07E-07)
Elementary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66 (0.061)	0.017 <sup>*</sup> (0.009)	-0.007 (0.008)	-0.003 (0.008)
Middle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86 (0.06)	0.007 (0.007)	0 (0.008)	-0.01 (0.007)
High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52 (0.059)	0.035 <sup>***</sup> (0.011)	-0.013 (0.008)	0.003 (0.007)
Colleg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68 (0.059)	0.03 <sup>**</sup> (0.012)	-0.018 <sup>**</sup> (0.008)	0.01 (0.008)
4 Year University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467 (0.059)	0.047 <sup>***</sup> (0.012)	-0.031 <sup>***</sup> (0.008)	0.018 <sup>**</sup> (0.008)
Master's degre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14 (0.063)	0.059 <sup>***</sup> (0.019)	-0.016 (0.01)	0.017 <sup>*</sup> (0.009)
Ph. D.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31 (0.093)	0.135 <sup>*</sup> (0.073)	-0.052 <sup>**</sup> (0.002)	0.04 <sup>*</sup> (0.02)
2008	0.081 <sup>***</sup> (0.013)	-0.053 <sup>***</sup> (0.01)	0.065 <sup>***</sup> (0.002)	-0.043 <sup>***</sup> (0.002)
2009	0.077 <sup>***</sup> (0.013)	-0.054 <sup>***</sup> (0.01)	0.066 <sup>***</sup> (0.002)	-0.044 <sup>***</sup> (0.002)
2010	0.041 <sup>***</sup> (0.015)	-0.026 <sup>**</sup> (0.012)	0.024 <sup>***</sup> (0.004)	-0.012 <sup>***</sup> (0.003)
Constant term	0.872 <sup>***</sup> (0.061)	0.008 (0.011)	0.963 <sup>***</sup> (0.008)	0.026 <sup>***</sup> (0.008)
R-squared	0.0736	0.071	0.070	0.063
No. of observation	1192	1192	11043	11043

다음으로 Table 7은 표본을 가구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며 안전자산의 경우, 다인 가구 표본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sup>4)</sup>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Table 8A. Regression analysis on each product (One-person-household sample)

The results in Table 8A show that education degree in One-person-household sample impacts on type of savings. To be specific, the empirical results of each financial products explain that coefficients of households-type for Deposit/Installment saving, Whole life insurance, and saving insuran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due to type of asset, its coefficient sign is differen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eposit/Inst allment saving	Personal pension	Term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Saving insurance	Gye	Risk Asset (Installment Fund)
Annual income from last year	-1.23E-06 <sup>***</sup> (3.27E-07)	1.01E-07 (3.37E-07)	-3.59E-07 (4.24E-07)	-4.84E-07 <sup>***</sup> (1.27E-07)	-1.12E-08 (1.78E-07)	3.90E-09 (8.39E-08)	2.02E-06 <sup>***</sup> (9.19E-08)
Elementary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379 <sup>***</sup> (0.1)	0.023 (0.015)	0.358 <sup>***</sup> (0.09)	0.035 <sup>*</sup> (0.019)	0.028 <sup>*</sup> (0.015)	-0.082 (0.061)	0.017 <sup>*</sup> (0.009)
Middle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267 <sup>**</sup> (0.105)	0.04 <sup>**</sup> (0.018)	0.259 <sup>***</sup> (0.094)	0.027 (0.019)	0.025 <sup>*</sup> (0.014)	-0.093 (0.061)	0.007 (0.007)
High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283 <sup>***</sup> (0.964)	0.026 <sup>**</sup> (0.011)	0.207 <sup>**</sup> (0.085)	0.062 <sup>***</sup> (0.019)	0.039 <sup>***</sup> (0.01)	-0.092 (0.059)	0.035 <sup>**</sup> (0.114)
Colleg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131 (0.979)	0.035 <sup>***</sup> (0.012)	0.059 (0.085)	0.067 <sup>***</sup> (0.019)	0.037 <sup>***</sup> (0.012)	-0.097 (0.059)	0.03 <sup>**</sup> (0.012)
4 Year University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238 <sup>**</sup> (0.096)	0.043 <sup>***</sup> (0.012)	0.108 (0.085)	0.083 <sup>***</sup> (0.018)	0.05 <sup>***</sup> (0.014)	-0.095 (0.059)	0.047 <sup>***</sup> (0.012)
Master's degre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303 <sup>***</sup> (0.11)	0.051 <sup>***</sup> (0.02)	0.105 (0.1)	0.082 <sup>**</sup> (0.032)	0.078 <sup>***</sup> (0.027)	-0.088 (0.06)	0.059 <sup>***</sup> (0.019)
Ph. D.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455 <sup>**</sup> (0.215)	0.064 (0.042)	0.306 (0.246)	0.038 (0.026)	0.015 (0.032)	-0.093 (0.058)	0.135 <sup>*</sup> (0.073)
2008	0.099 <sup>***</sup> (0.037)	0.004 (0.014)	-0.022 (0.034)	-0.022 (0.02)	0.022 (0.014)	0.008 <sup>***</sup> (0.008)	-0.053 <sup>***</sup> (0.01)
2009	0.133 <sup>***</sup> (0.033)	-0.011 (0.009)	-0.022 (0.032)	-0.036 <sup>**</sup> (0.016)	0.015 (0.011)	0.008 <sup>***</sup> (0.008)	-0.054 <sup>***</sup> (0.01)
2010	0.145 <sup>***</sup> (0.03)	-0.002 (0.01)	-0.043 (0.029)	-0.062 <sup>***</sup> (0.014)	0.006 (0.01)	0.008 <sup>***</sup> (0.008)	-0.026 <sup>**</sup> (0.012)
Constant term	0.463 <sup>*</sup> (0.252)	-0.039 <sup>**</sup> (0.017)	0.565 <sup>**</sup> (0.265)	-0.049 <sup>*</sup> (0.028)	-0.067 <sup>***</sup> (0.02)	0.061 <sup>*</sup> (0.061)	0.008 (0.011)
R-squared	0.103	0.035	0.112	0.033	0.027	0.058	0.071
No. of observation	1192	1192	1192	1192	1192	1192	1192

4) 1, 2인 가구를 합쳐서 분석한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과 소득이 높을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패턴은 1인 가구

Table 8B. Regression analysis on each product (Multi-person-household sample)

The results in Table 8B show that education degree in Multi-person-household sample impacts on type of savings. To explain, the results of each financial products show that most of coefficients' education level for all products a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sonal insurance, however, is statically significant for some education level.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eposit/Inst allment saving	Personal pension	Term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Saving insurance	Gye	Risk Asset (Installment Fund)
Annual income from last year	0.000*** (1.36E-06)	5.02E-06*** (6.74E-07)	-0.000*** (2.23E-06)	9.90E-07* (5.67E-07)	1.59E-06** (6.71E-07)	5.80E-07** (2.40E-07)	3.16E-06*** (5.07E-07)
Elementary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740** (0.035)	0.004 (0.010)	-0.025 (0.040)	-0.005 (0.022)	-0.055** (0.022)	0.011*** (0.003)	-0.003 (0.008)
Middle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46 (0.034)	0.005 (0.010)	0.006 (0.040)	-0.012 (0.021)	-0.045** (0.022)	0.009*** (0.003)	-0.010 (0.008)
High School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9 (0.034)	0.012 (0.009)	0.010 (0.039)	0.002 (0.021)	-0.028 (0.022)	0.009*** (0.002)	0.003 (0.007)
Colleg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11 (0.035)	0.176* (0.010)	-0.022 (0.040)	0.014 (0.021)	-0.016 (0.022)	0.006** (0.002)	0.010 (0.008)
4 Year University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 (0.034)	0.028*** (0.010)	-0.047 (0.039)	0.016 (0.021)	-0.029 (0.022)	0.011*** (0.002)	0.018** (0.008)
Master's degree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4 (0.037)	0.065*** (0.013)	-0.037 (0.042)	-0.003 (0.022)	-0.035 (0.023)	-0.000 (0.003)	0.017* (0.009)
Ph. D. (Householder's highest education)	-0.006 (0.052)	0.030 (0.010)	-0.552 (0.056)	0.024 (0.028)	-0.044 (0.029)	0.004 (0.008)	0.040** (0.020)
2008	0.028*** (0.008)	-0.008*** (0.003)	0.076*** (0.009)	-0.046*** (0.004)	0.015*** (0.003)	-0.022*** (0.001)	-0.043*** (0.002)
2009	0.077*** (0.010)	-0.002 (0.003)	0.007 (0.010)	-0.049*** (0.005)	0.033*** (0.005)	-0.021*** (0.001)	-0.044*** (0.002)
2010	0.054*** (0.009)	-0.000 (0.003)	-0.001 (0.009)	-0.053*** (0.004)	0.024*** (0.004)	-0.013*** (0.024)	-0.012*** (0.003)
Constant term	-0.056 (0.035)	-0.023** (0.010)	0.827*** (0.106)	0.827** (0.106)	0.044 (0.039)	0.011*** (0.002)	0.026*** (0.008)
R-squared	0.026	0.030	0.057	0.020	0.014	0.018	0.063
No. of observation	11043	11043	11043	11043	11043	11043	11043

나 다인 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는 전체 표본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연도변수의 경우 전체표본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구와 관계

없이 2010년 더미변수의 계수 은 이전의 연도더미변수의 계수 값의 크기에 비해 감소했으며 안전자산은 연도변수와 양의 값을, 위험자산은 연

도변수와 음의 값을 보인다.

Table 8A와 Table 8B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표본한 금융상품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적금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패턴은 1인 가구에서 나타나고, 다인 가구에서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구에 상관없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투자비중이 늘어나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구에 상관없이 교육수준과 투자비중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 가구에서는 교육수준과 투자비중간의 양의 관계가 있으며, 다인 가구에서는 연관 관계가 없다. 계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값은 없었으며,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졸 이하인 경우에만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 끝으로 위험 자산의 경우는 가구에 상관없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투자비중이 늘어난다. 연도 변수를 통해 다음의 추세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다. 예/적금의 연도변수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며, 증가추세의 양의 값을 보였다. 개인연금의 연도변수는 다인 가구의 2008년 변수만 유의미한 음의 값이 나타난다. 보장성 보험의 연도변수는 개인연금 변수와 같이 다인 가구의 2008년 변수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양의 값을 보였다. 종신보험의 연도변수는 1인 가구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연도변수가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며, 다인 가구표본에서는 모든 연도변수는 유의미하고 투자비중의 증가추세의 음의 값을 보였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연도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다인 가구의 연도변수는 증가추세의 양의 계수 값을 나타냈다. 계의 연도변수의 경우에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모두 유의미했으나 1인 가구에는 양의 값이나 다인 가구에서는 감소추세를 갖는 음의 값이 나타난다. 위험자산인 적립식 펀드의 연도변수는 가구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연도변수에서 감소추세의 음의 값이 나타났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독인가구 금융투자의 특성을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발견으로는 먼저, 각각의 금융자산 중에서 예/적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을 묶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적립식 펀드)에 대한 투자행태에서 1인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둘째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 가구의 포트폴리오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다. 셋째, 1인 가구 표본과 다인 가구 표본을 분리한 후 분석을 한 경우에 안전자산의 경우, 다인 가구 표본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1인 가구의 경우 예/적금 투자 비중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다인 가구에서는 연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종신보험/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 가구에서는 교육수준과 투자비중간의 양의 관계가 있으며, 다인 가구에서는 연관 관계가 없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은 1인 가구에서는 시간적 변화가 없고, 다인 가구에서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참고문헌 (References)

- 권지현(2007), 소득위험이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Translated in English) Kwon, J.H.(2007), *The Effect of Income Risk on Household Portfolio Allocation: based on data of the Korea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김옥연·문영기(2010), 가계 자산구조와 주택소유결정요인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지** 9(1), 25-38.  
(Translated in English) Kim, O.Y. and Y.K. Moon.(2010), Asset Portfolio of Household and Home-Ownership Determinants, *Residential Environment*, 9(1), 25-38.
- 김원중(2010), **국내 가계자산 구성 현황 및 향후 포트폴리오 변화방향과 시사점**, 제 39호, 하나 금융그룹 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im, W. J.(2010), *Domestic household asset portfolio and implication of future portfolio*, 39, Hana Financial Group institute.
- 배미경(2006),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9(4), 123-139.  
(Translated in English) Bae, M.K.(2006), A Study of Asset Allocation and Impact Variables on the Household's Portfolio,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Consumption Culture studies)*, 9(4), 123-139.
- 손은경(2012), **국내 고령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및 주거 형태**, 12-102,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Son E.K.(2012), *Asset portfolio and housing of domestic aging household*, 12-102, KB Financial Group Institute
- 양정열(2009), **도시 가구별 재무구조의 특성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Translated in English) Yang, J.Y.(2009), *A Study o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Urban Household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윤주희(2005), **저금리시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도입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투자포트폴리오 재구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Translated in English) Youn, J.H.(2005), *A study on possibility of investment portfolio on personal financial asset followed in indirect investment on real estates in times of low interest rat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 정운영(2008),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81-108.  
(Translated in English) Jeong, W.Y.(2008) Determinants of Portfolio composition choice: The case of Korean Household,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81-108.
- 조재현(2013), **보험 가입이 가계 위험금융자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Translated in English) Jo, J.H.(2013), *The effect of insurance on risky financial assets in household portfolio*,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조혜리(2013), **주택자산이 가구의 금융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Translated in English) Jo, H.R.(2013), *Analysis on effect of housing asset on financial portfolio of household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 최경아(2001), **가계부문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 수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Choi, K.A.(2001), *The Composition of Household Asset Portfolios and Household Asset Deman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최미향(2010),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Translated in English) Choi, M.H.(2012), *Changes in Household Financial Asset Portfolio according to Risk Tolera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최진영(2012), **미혼독신가구와 기혼부부가구의 펀드 투자행동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Translated in English) Choi, J.Y.(2012), *A*

*Comparison of Fund Investment Behavior among Unmarried Singleperson Household and Marriedcouple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솔로 이코노미 성장과 금융산업**.

(Translated in English) KB Financial Group Institute(2013), *development of solo economy and Finance*, KB Financial Group Institute

## Analysis on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Property

Hong Chong Cho<sup>\*</sup> · Changmin Lee<sup>\*\*</sup> · Jaehee Son<sup>\*\*\*</sup>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 School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The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one-person-household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the change of conventional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phenomena on increasing one-person-household are globally emerged, and specific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single women from twenties to thirties causes for them to make majority for new cultures and consumption. Also, due to the impact on one-person-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composed of multi-person household will change their consuming pattern. For instance, it shows changes in demand for new living space, relationship network in online, consumption pattern, and so on. Above all,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roducts will make an impact on financial markets.

In the view of this point, this paper shows the properties of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by comparing it with the portfolio of more than one-person-households. To analyze these properties, we will us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007 ~ 2010). The results of comparis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one-person-household and multi-person-household are as follows. Foremo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ree risk assets (deposit/installment savings, personal insurance, term insurance, saving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and risk assets (installment Fund). Second, one-person-household is more(less) inclined to invest deposit/installment savings (term insurance, saving insurance). Third, the higher educated one-person-household tends to decrease ratio of investment in deposit/installment savings. In one-person-household,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ratio of investment to whole life insurance and saving insurance, however, multi-person-household show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Finally, in saving insurance, there exist no time trends in one-person-household. Saving insurance of more than one-person-household has increasing trends.

*Key Words* : One-person-household, Portfolio

\* Assistant Professor in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first author, hongcho@dankook.ac.kr.

\*\* Assistant Professor in School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angmin74@hanyang.ac.kr.

\*\*\* Senior Researche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authors, jhee5910@daum.net.